



출산율은 높는데 인구 감소 가속화 왜?

일자리 찾아 젊은층들 '脫 전남'

젊은층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전남 농업은 남아있는 노인들의 몫이 됐다. 19일 화순군 주도리 한 논에서 팔순을 바라보는 노부부가 모내기를 앞두고 논을 고르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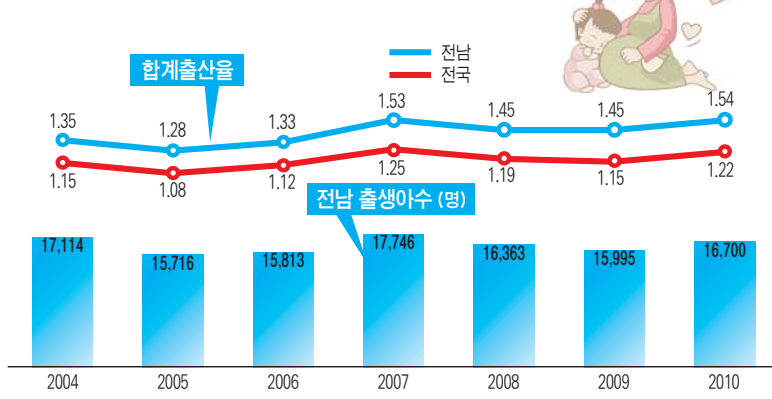
이대론 성장동력 붕괴... 전남 미래발전 없어 기업유치·복지·교육 등 정책개선 서둘러야

전남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1.5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전국 평균(1.22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지난 2008·2009년 합계출산율(1.45명)보다도 상승했다.

강진(26.7%), 완도(26.4%), 해남(25.2%), 담양(24.9%), 장성(24.3%), 나주(23.6%), 영광(23.2%), 영암(20.9%), 화순(20.4%) 등이다. 293개 읍·면·동까지 구체화할 경우 무려 노인 인구 비율이 40%가 넘는 읍·면·동만 15개에 이른다. '60대 청춘'이라는 자조적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사망률도 높다. 통계청이 분석한 전남의 사망률은 지난해 8.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 출산율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평생 낳는 출생아 수)



(-1만5023명), 부산(-2만8466명), 대구(-1만1840명)에 이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젊은층인 20대의 탈(脫) 전남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3.6%)을 기록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전남 젊은층들이 많다는 의미다.

전남 노인인구 상위 20위 읍·면·동

Table with 3 columns: Rank, Name, Population, and Ratio. Lists the top 20 municipalities in Jeonnam with the highest elderly populations, such as Gochang, Hwasun, and Jeonju.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리모델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끝없이 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산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에 맞춰 기존 복지 정책을 손질하는 한편, 젊은층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및 기업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초고령' 고흥 두원면

3685명 중 1663명 '65세 이상'

고흥군 두원면은 전남도내 295개 읍·면·동 중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두원면 인구(3685명·2010년 말) 중 45.13%인 166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들의 경우 딱히 병이 없어도 병원을 찾는 탓에 두원면 보건소와 각각 2곳의 보건지소·진료소에는 하루종일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노인 위주라 상권이라고 해야 할

단 정도도 고작이고 도심 중심가에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접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두원면과 같이 전남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0%가 넘는 지역이 적지 않다. 화순군 청풍면도 전체 1293명 중 571명(44.16%)이 65세 이상 노인인 두원면에 이어 '가장 높은 읍·면·동 2위'다. ▲장흥군 부산면(노인인구 비율 43.98%) ▲영광군 군남면(43.79%) ▲보성군 노동면(43.60%) ▲해남군 계곡면(42.42%) ▲보성군 검백면(42.08%) ▲고흥군

점암면(42.05%) 등도 40%가 넘었다. 출생아의 경우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목포(2526명)·여수(2437명)·순천(2165명)·광양(1601명) 등 시 지역이 많았다. 반면, 구례의 출생아는 199명(2009년 기준)에 불과해 가장 적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유치·귀농정책 전남활력 되찾을까 3년내 15만여명 일자리 창출 최근 10년새 5960가구 정착

전남에 투자하겠다는 기업과의 협약식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행사다. 떠나는 인구를 되돌아오게 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고용 창출 및 소득 유발 효과가 큰 기업 유치가 절대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최근 귀농가구를 1만 가구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인구 감소를 막고 날로 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올해 1500가구를 전남으로 끌어들이고 ▲2012년 2000가구 ▲2013년 2500가구 ▲2014년 4000가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기업 유치와 귀농 정책 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기업 유치 효과는 언제쯤?> 전남도는 지난 2004년 6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16개 기업과 총 75조 987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 중 50.3%인 513개 기업은 이미 부지 매입이나 건축 공사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진 상태다. 지방에서 투자유치 한 건 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전남도는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껏 협약을 체결했던 기업들의 투자도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3년 이내 도내 15만3490명의 일자리

An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and a woman looking at a computer screen displaying 'MB정부' (MB Government) and '고령화' (Aging). The text discusses the impact of aging on the economy and the need for government support.

A large advertisement for '2011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2011 Jeju Golf Tour Giveaway Event). It features a blue and yellow color scheme and lists various golf packages with prices. Packages include stays at resorts like Haebechi and Everis, and hotels like Gwangho and Grand. The event dates are July 3rd and July 10th. Contact information for Koreanair Asia Pacific is provided at the bottom.